한국축구, 이젠 2022 카타르월드컵이다 | 축구협회, 9월·10월 A매치 추진

대표팀 새 감독, 데뷔전 상대는 ‘코스타리카’

〈한국〉

FIFA 23위…역대전적 3승 2무 3패
양국 조별리그 탈락 후 협상 급물살
남미 축구 강호 파나마·칠레도 접촉
유럽 섭외 어려워…한·일전도 타진

본지 단독

새 사령탑 선임 작업과 더불어 2022카타르월드컵을 향한 한국축구의 발 빠른 행보가 계속된다. 대한축구협회가 9월 A매치 기간에 북중미 다크호스 코스타리카와 친선경기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축구 관계자들은 8일 “협회가 꾸준히 코스타리카 평가전을 타진해왔다. 2018러시아월드컵 이전부터 협의를 했고, 양국이 대회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고 귀띔했다.

협회는 당초 월드컵 조별리그 F조 2차전 상대인 멕시코를 겨냥한 A매치 스파링 파트너로 코스타리카를 염두에 뒀으나 서로 원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내에서의 정확한 대진 일자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큰 변수가 없는 한 코스타리카 대표팀의 방한은 성사될 전망이다.

6월 기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의 코스타리카는 이번 월드컵에서 세르비아~브라질~스위스 등 세계적인 강호들과 조별리그 E조에 편성됐고, 1무2패의 성적을 냈다. 4년 전 브라질대회에서 8강에 오르는 기적을 재현하지 못했으나 한 수 위의 전력을 보유한 팀들에 당당히 맞서면서 충분한 가능성과 저력을 확인시켰다는 평가다.

양국의 A매치 역대전적은 3승2무3패로 팽팽한 가운데, 코스타리카는 브라질월드컵 직후인 2014년 10월에도 방한경기를 치른 바 있다. 결과는 우리의 1-3 패배.

현재 기류와 정황으로 살필 때 이번 경기는 협회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감독의 데뷔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축구협회(JFA)는 FIFA의 9월 A매치 일정(9월 3~11일) 마지막 날에 스이타 스타디움에서 코스타리카와 대결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라 코스타리카는 우리와 먼저 경기를 하고, 일본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협회는 또 다른 북중미 국가인 파나마와 남미 강호 칠레와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파나마 역시 일본과 10월 A매치(니가타)를 준비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9월 초청은 불가능해 보인다. 협회는 10월 8~16일, 11월 12~20일 이어질 A매치 스케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축구연맹(UEFA)이 FIFA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대륙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UEFA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네이션스리그를 개최할 예정이라 현실적으로 내년 전반기까지는 유럽 팀들과의 A매치는 어렵다. 일정이 비어있는 상대국들을 찾아가는 원정 경기는 가능하지만 랭킹이 높은 강호들은 초청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타리카의 방한 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편, 협회는 JFA와 한·일전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월드컵 이전부터 협회 수뇌부 차원에서 긴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만약 한·일전이 성사된다면 통산 79번째 승부로, 가장 최근의 대결은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끝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챔피언십 최종전(3차전·한국 4-1 승)이다. 이는 2010년 5월 사이타마 대첩(2-0 승) 이후 약 7년여만의 승리로 태극전사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줬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46연속경기 출루

추신수, 텍사스 구단 최다 타이

추신수

아시아 야구의 역사를 새로 쓴 추신수(36·텍사스)가 연속출루 기록을 ‘46경기’까지 늘려 소속 구단 타이기록을 만들었다.

추신수는 8일(한국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코메리카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와의 원정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큼지막한 2루타 두방을 앞세워 4타수 2안타의 맹활약으로 46연속경기 출루에 성공했다.

추신수는 지난 5일 44연속경기 출루에 성공해 종전 스즈키 이치로(45·일본)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 선수 빅리그 연속경기 출루 최고기록(43연속경기)을 새롭게 썼다. 이제는 출루 하나하나가 새로운 기록인 상황에서 구단 신기록까지 넘보게 됐다.

텍사스 구단의 연속출루 최고기록은 1993년에 훌리오 프랑코가 세운 46연속경기 출루다. 현지 언론은 이러한 점에 주목해 일제히 추신수의 기록 행진을 집중 조명했다. 텍사스 현지언론인 ‘포트워스 스타텔레그램’은 “추신수가 역사책에 올라갔다. 프랑코가 세운 구단 연속출루 최고기록에 타이를 이뤘다”고 전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한국 연봉 톱10 중 6명 ‘오너 경영인’

CEO스코어, 한·미·일 100대 기업 조사

순위의 전문경영인은 모두 삼성 임원
권오현 부회장 243억8천만원 보수 1위
미국 8명·일본 톱10 전원 전문경영인

한국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기업인은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이고, 연봉 상위 10명 중 6명은 전문경영인이 아닌 소유와 경영을 겸하는 ‘오너 경영인’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등기임원의 보수총액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상위 10명의 총액이 1006억 원으로 미국 5091억 원이나 일본 1306억 원보다 적었다. 하지만 상위 10명 중 6명이 오너일가에 속했다. 2위에 오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다. 이에 반해 순위에 오른 전문경영인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신종균 삼성전자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등 모두 삼성그룹의 임원들이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보수 상위 10명 중 4위와 10위를 제외한 8명이 전문경영인이었고, 일본은 보수 총액 상위 10명 모두 전문경영인이었다.

세 나라를 통틀어 보수 총액이 가장 많은 경영인은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의 CEO 호크 탄으로 1103억원에 달했다. 이는 한국 상위 10명의 보수를 합친 금액보다도 100억 원 가까이 많은 액수이다. 한국은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이 243억8000만원 1위였다. 일본은 유통회사인 세븐앤아이홀딩스의 조지프 마이클 데핀트가 241억 원으로 수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각국 보수 공개 기준에 따라 결산보고서에 공시된 임원을 대상으로 했다. 미국과 일본의 미등기임원도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연 5억 원 이상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으로 공시 대상이 한정된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미등기임원으로 되어 있는 주요기업 오너일가의 보수는 빠졌다.

한편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보수총액 공개 대상자를 기존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확대해 재벌 총수 도 연2회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국 시총 100대 기업 경영인 보수 총액 톱10

기업	이름	보수총액
삼성전자	권오현	243억8000만원
롯데캐미컬 外 6개사	신동빈	152억3300만원
아모레퍼시픽 外 1개사	서경배	109억1900만원
삼성전자	신종균	84억2700만원
현대자동차 外 1개사	정몽구	80억900만원
삼성전자	윤부근	76억6900만원
GS 外 1개사	허창수	73억300만원
대한항공 外 2개사	조양호	66억4000만원
엔씨소프트	김택진	62억2400만원
삼성물산	최치훈	57억5500만원

※ 출처 : CEO스코어 / 2017년 연 5억원 이상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 대상

나눔 Lotto
복권은 수익으로 건전하게 즐기세요

나눔 Lotto 6/45 814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18년 7월 7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2	21	28	38	42	45	30

1등 총 당첨금 18,403,152,378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6	3,067,192,063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일치	52	58,984,463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일치	1,833	1,673,319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일치	93,837	50,000 원	50,000원
5등	3개 숫자일치	1,585,777	5,000 원	5,000원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 나눔로또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nlotto.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나친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1855-0112 www.ngcc.go.kr

2008년 ‘아이언맨’으로 시작한 마블스튜디오 영화가 4일 개봉한 ‘앤트맨과 와스프’까지 흥행 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내에서 1억 관객 돌파를 눈앞에 뒀다. 사진제공 |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마블, 국내극장 ‘1억 관객’ 돌파 초읽기

역대 19편서 9534만 관객 기록
‘앤트맨과 와스프’ 첫 주 200만명
460만 이상 동원땐 1억명 대기록

마블스튜디오가 국내 극장에서 1억 관객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마블스튜디오의 통산 20번째 영화인 ‘앤트맨과 와스프’가 개봉 직후 연일 뜨거운 반응을 얻는 데 성공하면서 대기록 수립을 예고하고 있다.

‘앤트맨과 와스프’는 4일 개봉해 첫 주말인 6일부터 8일까지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면서 누적 관객 200만 명을 가뿐히 넘어섰다. 이미 개봉 첫날 1616개 스크린에서 4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돌풍을 예고했고, 첫 주말에도 1700여개 스크린을 확보해 관객을 빠르게 흡수했다.

‘앤트맨과 와스프’는 2008년 ‘아이언맨’ 1편으로 출발한 마블스튜디오가 추구해온 마블의 세계관, 즉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MCU) 아래서 탄생한 20번째 작품이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마블스튜디오는 2월 ‘블랙팬서’와 4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까지 총 19편을 선보였다. 이들 작품이 국내에서 모은 누적 관객은 지금까지 9534만 명. 하나의 세계관으로 완성한 단일 스튜디오의 영화들이 국내 극장에서 누적 1억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한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만약 ‘앤트맨과 와스프’가 460만 관객 이상 동원하면 마블스튜디오는 국내에서 1억 관객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지금 극장 분위기로 본다면 이는 시간문제다.

2015년 출발한 마블의 새 시리즈 ‘앤트맨’은 ‘어벤져스’ 등 기존 마블 영화들에 비해 캐릭터의 경쟁력이나 이야기 등에 있어서 상대적인 약체로 평가받았다. 1편이 거둔 284만 관객 기록 역시 마블 시리즈의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후속편인 ‘앤트맨과 와스프’를 향한 반응은 사뭇 다르다. 1편의 기록을 가뿐히 뛰어넘는 동시에 여름 극장 성수기 특수까지 그대로 흡수해 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영화의 여름 흥행 대전이 본격 시작하는 이달 말까지 이렇다 할 경쟁작이 없는 상황 역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마블스튜디오가 국내에 누적 관객 1억 돌파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마블=흥행 불패’의 공식은 더욱 공고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쏟아지는 또 다른 마블 시리즈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당장 내년 상반기 ‘어벤져스4’를 시작으로 여성 히어로를 내세운 ‘캡틴 마블’ 등 시리즈가 줄줄이 이어진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